

0. 지워진 기억 한 장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꿈꿈한 냄새가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기억에 없는 장소였다. 선배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노래방 이후의 기억이 불분명했다. 몇몇 장면이 사진처럼 단편적으로 떠올랐지만 그마저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혹은 꿈인지 분간이 되지를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머리가 핑 돌며 저 깊은 속에서 뜨거운 게 솟구쳤다.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었다. 변기에 얼굴을 처박는 것과 동시에 뱃속에 있는 것들을 게워냈다.

“우웬에엑!”

구역질을 했지만 음식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지난밤에 다 게워낸 모양이었다. 그저 헛구역질만 끊이지 않았다. 속이 너무 아팠다. 위가 식도를 타고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속도 아프고 목구멍도 아프고, 몇 번의 헛구역질에 진이 다 빠졌다.

구역질이 멎은 후, 대충 입을 씻고 나와 냉장고를 열었다. 500ml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이 보였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찬물이 식도를 지나 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느껴졌다. 개운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잠시, 다시금 구토감이 몰려왔다. 화장실 문을 열어젖히고 다시 변기를 끌어안았다.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는지 모르겠다. 진이 다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속이 아파서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아픈 속을 달래고 있는데, 핸드폰이 가볍게 울었다. 선배가 보낸 메시지였다.

- 현수씨. 좀 괜찮아? 어제 많이 무리한 것 같은데, 별일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장 잘하고 다음에 보자.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가만히 선배가 보낸 메시지를 살펴보니 느낌이 이상했다. 소주 여섯 병까지 마신 기억이 있으니 평소보다 무리한 것은 맞는데, 별일 없었다니? 그냥 넘기기에는 어감이 많이 이상했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별일 있었다는 것 아닌가? 필름이 끊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전화가 울었다. 선배였다.

“여보세요.”

“어, 현수 살아있어? 어제 많이 달리던데.”

“네. 살아있어요. 하지만 곧 죽을지도 몰라요. 제 속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누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그렇게 퍼부으래? 나도 너 때문에 고생 엄청 했다고. 너 완전 췌아 가지고 얼마나 무거웠는데. 그걸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모텔에 데려다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해. 알겠어?”

“그러는데요. 감사해요, 누나. 덕분에 편히 잘 잤어요. 숙취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숙취는 네가 자초한 거야. 여튼, 나도 오랜만에 술 많이 마셔서 음주 수업했다. 수업하다가

중간에 헛소리 하고, 애는 놀라고.”

“아, 누나. 오늘 수업했어요?”

“그럼. 수업을 해야 벌어먹고 살지. 나는 해장했으니까 너도 어여 일어나 해장하고.”

“네. 고마워요. 그런데 어제 제가 주사 부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필름이 끊기는 바람에 혹시 누나에게 폐를 끼쳤을까봐....”

“어? 어제 일 생각 안 나? 뭐, 별일 없었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어.”

“누나, 별일 없었다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별일 없었어요?”

선배가 전화상으로도 별일 없었다고 하니 덜컥 겁이나 되물었다. 하지만 선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였다. 긴 시간도 아니었다. 약 1초 정도의 짧은 침묵.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스쳤다. 짧은 침묵을 되감으려는 듯 어색한 선배의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왔다.

“음. 네가 취해서 집안 이야기 모두 다 털어놓은 거? 노래방 유리문을 못 보고 세게 부딪친 거? 노래 부르다 말고 화장실 간다더니 사라지는 바람에 노래방 직원들이 너 찾아 다닌 거? 그 정도 사건이야 뭐... 별일 아니잖아.”

선배의 말을 들으니 뿌옇게 가려져 있던 취중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소주 세 병이 넘어가면서 경계가 풀려 해도 될 말, 안 될 말을 다 털어놓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 일. 신나서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닫힌 유리문을 못 보고 세게 부딪친 일.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놀다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방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헤매던 일 등, 취중에 겪었던 일들이 기억났다.

다행히 선배의 말대로 별일 없었던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아, 그래요? 혹시 뭐 바지 벗고 춤추고 그러지는 않았죠?”

“....”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재미가 없었는지 선배는 아무 말도 않았다. 무안한 마음에 급히 인사를 했다.

“아, 장난이에요. 누나. 여튼 고마워요. 길바닥에 버리지 않아줘서. 그럼 오늘도 잘 보내구요, 다음에 연락해요.”

“그래, 누나가 다음에 연락할게. 꼭 해장해라.”

선배와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무언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선배가 사용한 ‘별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취한 상태의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답을 내기 위해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리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저 안개가 가득한 숲속을 거닐 듯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결국 기억해내기를 포기하고 술 냄새와 땀 냄새로 찝찝한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어내니 머릿속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다. 몸을 다 씻은 후에 덥혀진 몸을 가라앉히려 찬물을 틀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머리를, 얼굴을, 그리고 입술을 적셨다.

“아!”

찬물이 입술에 닿는 그 순간, 그렇게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던 ‘별일’이 기억났다. 차가운 물보다 더 시원했던 그 입술. 노래방에서 있었던 선배와의 입맞춤. 얼음을 입에 물고 있던 선배의 입술은 무엇보다 차가웠지만 달콤했었다. 10년 만에 여자와 입술을 맞닿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편적이지만 선배와 입술을 부딪치던 그 순간이 기억났다.

그래, 지난밤. 내가 선배의 입술을 훔쳤다.

1. 뜬금없는 연락

지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배운지 반년이 지나가자 일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렸고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가기만 했다. 게다가 사장이라는 인간은 성격이 어찌나 지랄 맞은지, 매일같이 소리 치고, 욕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하는 통에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었다.

여자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솔로가 된 지도 어언 8년째다. 스물한 살, 입대하면서 CC였던 친구와 헤어진 이후 쪽 솔로였다. 그렇다고 내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연이 닿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보였던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있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혼자 병어리 냉가슴만 앓다 용기 내어 고백하면 돌아오는 그녀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는 좋은 선배를 잃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옆에서 지켜주는 ‘선배’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후배만 쫓아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내 고백에 대한 답변은 이런 식의 문장에 단어만 몇 개 바뀔 뿐이었다. ‘선배’가 ‘친구’나 ‘동생’, 혹은 ‘동료’로.

솔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뇌 속의 연애세포들이 죽어가며 외치는 단말마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대로 연애도 못하고 솔로로 궁상떠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친구들을 통해 소개팅도 여러 번 해봤다. 하지만 한 번도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소개 받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여자를 보는 눈이 높아서였는지, 연애세포가 괴사해서였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여자 친구도 없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대단한 인맥 덕분에 주말은 언제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스스로가 한심하고 답답해서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게임 이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컴퓨터 앞을 벗어나지 못하고 게임만 하는 잉여짓이 반복되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날도 나는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한창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데, 전화가 부르르 떨어졌다. 슬쩍 화면을 보니 특이 왔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낯설었다. ‘A singer for Him’. 며칠 전부터 특의 상대방에 새로 등록된 사람이었는데, 풍경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놓고 자기소개 글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어서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당연히 잘못 온 문자려니 생각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전화를 들었다.

- 현수, 날자 23기 희진 누님이지롱 ㅋㅋㅋ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이름이었다. 대학시절 활동했던 밴드 ‘W.O.F(Wings of Freedom)’, 자유의 날개를 줄인 말, 날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카리스마 넘치던 리더 한희진. 화면에 박혀있는 두 이름을 보자 즐거웠던 캠퍼스 라이프가 봇물 터지듯 떠올랐다. 즐거웠던 밴드 연습과 CC의 추억. 정신없이 산과 들을 쏘다녔던 MT, 그리고 연말 공연.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던 그 시절이 기억났다. 잠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옛 생각을 음미하다 답장을 보냈다.

- 아, 누님이셨군요. 며칠 전부터 리스트에 뜨더만, 누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 ㅋㅋㅋ 내가 쯤 신비주의지.

- 신비주의를 표방하기에는 우린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그럴지? ㅋㅋㅋ

- 요즘 날이 엄청 후텁지근한데 잘 지내고 계세요?

- 뭐, 그냥 그럴지.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냐.

-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죠. 인생 뭐 별 건가요. ㅇㅅㅇ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인생 뭐 별 거냐. 잘 지내나 보구만.

- ㅋㅋ 넵. 숨 쉬고 있는 걸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러그러.

- 참, 누님. 저에게 누님의 번호가 없습니다. 미천한 신(臣)에게 고귀한 번호를 알려주시옵소서.

- 어, 너 영아랑 계속 연락하고 있던 거 아녜어?

- 영아 누나요? 뭐, 생각날 때마다 가끔 연락은 했죠.

- 그런데 영아가 내 번호 안 알려주든?

- 네. 뭐 그러니까 이제야 번호를 물어보는 거겠죠?

- ㅋㅋㅋㅋㅋㅋ 뭐야. 나는 영아한테 니 번호 받았는데.

- 아. 그랬구나. 여튼 중요한 건 모자란 신이 여왕폐하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사실이옵시다.

- ㅋㅋㅋㅋㅋㅋ 오냐. 내 너를 금홀히 여겨 짐의 번호를 하사하노라. ㅋㅋㅋㅋㅋ

-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ㅇㅅㅇ

오랜만에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니 10년 전의 말투나 장난기가 되살아났다. 선배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었다. 모든 공연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카리스마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열광시켰었다. 선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팬카페를 만들었고, 그곳은 그녀가 추종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다. 'Jin's Kingdom.' 나는 그곳에서 그녀의 일정이나 공연사진 등을 올리고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비록 회원은 40여 명 뿐이었지만, 나름대로 화합도 잘되고 선배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나 모임진행이 어렵지는 않았다. 선배의 팬카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그녀를 여왕으로 섬겼고 게시판에는 항상 고어투로 글을 남겼었다. 그 덕분인지 오랜만의 대화에 나도 모르게 고어(古語) 투로 임하게 됐다.

10년 만에 그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역시 옛말처럼 사람은 오래될수록 그 가치를 더하는 것 같다. 단지 글자로 대화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지고 옛 생각에 잠길 수 있으니 말이다.

- 누님. 혹시 돌아오는 주말에 바쁘십니까?

- 응? 주말에? 글썄... 가봐야 알 것 같은데?

- 그렇다면 그 때 같이 저녁이나 먹죠.

- 응? 누구랑. 너랑?

- 지금 나 이외에 누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 갑자기 왜?

- 데이트 신청입니다. 10년 만에 연락되어서 반가우니까요. ㅇㅅㅇ

- 너 되게 뜬금없다. ㅋㅋㅋㅋㅋ 그래, 만나자. 돌아오는 일요일에. 시간은 네가 정해. 나 기대하고 있는다?

-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죠.

- ㅇㅇ

선배와 대화를 마무리하고 난 뒤, 다시 게임에 열중했다. 선배와 약속은 내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